

# 어슬픈 인사에 어수선한 광주시

### 컨벤션부로 대표 국정원 출신 선임과정 잠음

### 정무특보 내정자 의혹 제기 임용 결정 미뤄

### 노인건강타운 신입 본부장은 과거 범죄경력도

광주시가 매끄럽지 못한 인사로 어수선하다. 광주컨벤션부로는 최근 대표 이사를 선임하면서 석연치 않은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해 일부 공모자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광주시 정무특보 내정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선임이 미뤄지고 있다. 이달 초 선임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뒤늦게 범죄 이력이 드러나 논란을 벌였다. 또 행정부시장은 4개월 넘게 인선이 지연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연간 국·시비로 17억원 안팎을 지원받는 (사)광주관광컨벤션부

로는 지난 21일 국정원 간부 출신인 이지훈씨를 대표 이사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부로는 26일 이사회 총회인준을 거쳐 대표이사를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부로 대표이사는 연봉만 7400만원에,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하지만 부로측이 대표이사 공모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17일)을 통과한 특정인을 이례적으로 면접심사 당일(갑자기) 탈락시키는 바람에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면접심사일을 20일에서 21일로 연기해 의혹을 사고 있다.

부로측은 부로 이사이기도 한 김홍주 광주관광협회 회장이 지난 3월 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이사회에 참가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결격 사유가 있어 탈락시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공모규정에 없는 기준인데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면접심사가 아닌 공모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이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문제가 있다면 서류전형 또는 면접에서 탈락시키면 될 일을, 면접일까지 미루면서 탈락시킨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 13일 새 정무특보 최종합격자로 이해명씨를 발표해 놓고도 임용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는 신원조회 등 모든 채용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갑자기 이씨의 전력과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피

력한 상대다.

광주시는 최근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의 과거 범죄경력 등이 논란에 휩싸인 탓에 인사에 매우 신중한 태도다.

건강타운 본부장은 지난 1998년 순천대 총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전임강사가 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광주시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며 최종 임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고위 행정관료 출신이 맡아온 광주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현 오형국 부시장이 임명되지 못한 점도 놓고도 말이 많다. 지금까지 상근 부회장은 대부분 시장과 상공회의소측의 협의 아래 행정부시장급이 임명된 것이 관례였다. 이는 시장이 최고위 공무원인 부시장을 우대함으로써 공조적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상징적인 하나의 인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 해외연수 중 외국 공항서 추태

### 영광군 의원 2명 징계 받는다

해외연수 중 외국 공항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여 큰 물의(광주 일보 18일자 6면)을 빚은 영광군 의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내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회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며 “올해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하고 의정연수도 공공기관 연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원 2명은 지난 13일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귀국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협박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항경비대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 비난을 받았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풀리나

### 전남도·정부, 25일 여수서 끝장토론회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전남의 섬·해안 등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과 외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도민이 피부르느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전남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중앙부처 관계관,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섬·해안·어업 관련 35년간 해 목은 규제가 논의 대상이 된다. 전남이 전국 섬의 65%인 2219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안선의 45%인 6743km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982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며,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육지 340.43km, 해상 2004.48km 등 모두 2344.91km의 국내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주민이나 지자체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불합리하게 묶인 제한지역의 지정 해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관광지 개발과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 제거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지역 발전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전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불투명

### 중 외교장관, 日 역사인식 개선 강조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협력 복원 의지와 함께 그동안 3국 협력의 정상적 진행을 가로막았던 일본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이 일본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는 중일 양자 관계의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방한 회담이 과거사 문제를 풀 정도로 일본을 겨냥한 ‘역사 공세’에 집중했다.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길’로 ‘정지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를 제시하기도 한 왕 부장은 3국 정상회의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자 관계와 3국 협력 문제를 사실상 분리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으며 조기에 3국 협력을 정상화하는데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른바 ‘아베(安倍) 담화’가 3국 정상회의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 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재정 타개해야”

###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확충 순천서 ‘네트워크 포럼’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공동세 도입을 통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에너지 저장 및 비축시설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등 지자체들의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장희 부원장은 “국세 이양을 위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가 지난 20일 순천시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양 ▲복지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대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

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비·광역시·도비·시·군비의 중증적으로 형성돼 있는 복지보조금 재정관리 구조를 단증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공동세를 활용하면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발표를 맡은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 신 개발지 실전 투자 설명회 -

99% 만족률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2015년 올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부동산투자 맥을 짚어라
- 침체기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다이벨! 집중 분석
- 남약 도청 2차 오피스지구 미래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03. 25(수)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9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지구 북광주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 공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00명을 모집합니다.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감사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한신지방개발청 외래교수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대표  
(주)새남농장 대표이사  
한지인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b>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b>교사, 교수 28-49세</b>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b>공무원(5급-9급) 27-42세</b>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63) 275-7766